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2133-3630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2133-3624
담 당 자	채영옥	2133-3656
	노용문	2133-4438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6매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4천개소 관리총력

- 시·구 등 29개 TF팀 가동, 위반행위 시 과태료·행정처분...무관용 엄정 관리
-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 수도권 경계지역 위례, 장지 단속 시작...드론 등 첨단장비 첫 활용
-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병행해 동참 유도, 계절관리제 효과 극대화

-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서울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천여개소(대기배출사업장 2,12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 핵심적으로 도금·도장 업체 등 4천여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을 전수점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력해 수도권 경계지역인 위례, 장지에 대한 합동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합동단속엔 드론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단속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 우선 서울전역 총 4천여 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전수점검은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단속이 이뤄지도록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다.

- 전수점검을 통해 공사장 방진막은 설치했는지, 살수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를 운반할 때 덮개를 덮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이상 강화되는 만큼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한다.
-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먼지, 일산화탄소 등 총 10종의 일반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 배출사업장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이 기간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총 29개 단속 TF팀을 가동한다.
 - 현재 서울시는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상시점검을 위해 자치구별로 2명이 전체 4천여개소 중 연간 약 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1~4회 점검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점검에 더해 전수 점검도 진행한다.
 - 시는 내년엔 25개 자치구별로 2명씩, 총 50명의 시민참여감시단도 선발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개요

- 점검대상 : 대기배출사업장 2,12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개소
- 점검횟수 : 기존 연 1~4회 점검 + 추가 전수점검
- 29개 단속 TF팀 가동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1개팀(3명)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개팀(3명)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개팀(팀당 5명) ▲자치구 25개팀(팀당 3~4명)
- TF팀 단속 지역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민원 다발 공사장·사업장, 민생사법경찰단-무허가 대기배출사업장, 보건환경연구원-배출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 위주 점검

‘20년 1월부터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일반오염물질 10종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

구분	배출허용기준		강화율(%)	
	현행	개정		
일반 (10종)	먼지(ng/Sm)	10~70	5~50	33
	아연 및 그 화합물(ng/Sm)	5	4	20
	일산화탄소(ppm)	50~300	50~300	3
	암모니아(ppm)	20~50	12~30	39
	질소산화물(ppm)	20~530	10~250	28
	황산화물(ppm)	10~540	10~250	32
	황화수소(ppm)	2~10	2~5	26
	이황화탄소(ppm)	30	10	67
	탄화수소(ppm)	40~200	40~200	38
	구리 및 그 화합물(ng/Sm)	5	4	20

※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경우 최소 최대치가 아닌 중간값이 강화된 것임

▶ 크롬, 비소,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24종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

□ 둘째, 서울과 접한 수도권 경계지역에 위치한 장지, 위례 지역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 지역 단속반과 협력해 월 2회 이상 감시활동을 펼친다.

□ 특히 넓은 지역이나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드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을 분석하는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한다.

□ 첫 단속은 12일(목)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송파구 위례지구 비산먼지 발생사업 밀집 지역과 장지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이뤄진다.

○ 위례지구에선 촬영용 드론으로 공사장이 살수는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야적토사 방진덮개는 설치했는지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장지동에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장 굴뚝 등에 포집용 드론을 띄워 오염물질을 모으고,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농도를 분석한다.



□ 셋째, 시는 계절관리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 소규모사업장은 대기배출 사업장 중 약 90%를 차지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190개소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22년까지 총 600개소에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및 신규 설치 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국비:시비:자부담 = 5:4:1)

※ 2019~2022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계획

구분	계	연도별 목표 및 소요예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장 수(개소)	600	190	190	120	100
소요예산(백만원)	32,328	10,163	10,163	6,553	5,449

□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부터 이듬 봄철(12~3월)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 시는 지난 11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도로청소 강화 등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분야에서 9대 핵심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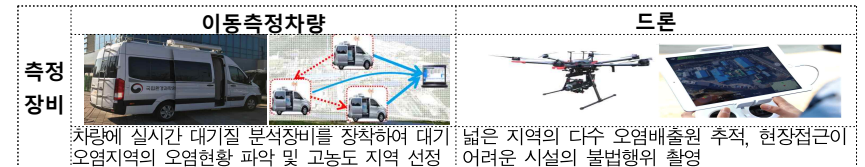
□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추진되는 고농도 시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부문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근절 하겠다”며 “영세사업장에는 환경기술 및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해 배출업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도 뜻깊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단속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드론을 활용한 대기오염배출사업장 합동 감시활동 계획. 끝.

붙임 드론 활용한 대기오염배출사업장 합동 감시활동 계획(안)

□ **활동개요**

- 일 시 : 2019.12.12.(목) 10:00~11:00
- 장 소 : 송파구 장지동 대기배출사업장, 위례지구 공사장
- 주요내용 : 드론 및 측정차량 활용 환경오염 감시활동
 - 감시반 : 서울시·수도권대기환경청 합동 1개반 6명
 - 감시장비 : 드론 2대, 이동형 측정차량 1대(수도권대기환경청 보유)
 - 감시내용 : 환경오염 밀집지역의 사업장 환경오염 감시 활동 전개
 - ▶ (드론 활용) 위례지구 비산먼지발생사업 밀집 지역의 공사장별 살수, 야적토사 방진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억제조치 이행여부 확인
 - ▶ (측정차량 활용) 장지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



- 이동동선 : 장지동 대기배출사업장(10:00~10:30) → 이동(10분) → 위례지구 비산먼지발생사업장(10:40~11:00)

□ **위치도**



작성자 대기정책과장 : 윤재삼 ☎2133-3630 배출관리팀장 : 정대권 ☎3624 담당 : 채영욱 ☎3656